

## 우리 함께 공부하자: 제1회 학부생을 위한 스터디 그룹

박은미\*

\*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지원부 연구원.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기획한 ‘제1회 학부생을 위한 스터디 그룹’은 같은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스터디 그룹을 조직해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목적은 수업의 깊이와 속도, 방대한 자료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스터디 그룹 운영을 지원해,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자는 데 있다. 이외에도 스터디 그룹을 통해 학생들은 학습 능력의 향상이라는 일차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학생들은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는 동안에 공동체 의식, 협동심, 의사소통의 능력 등을 기를 수 있다. 또 각 스터디 그룹에는 지도교수를 두게 했으며, 그로 인해 교수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월부터 한달 동안의 공모 기간을 걸쳐 총 17팀 81명이 선정되었고, 한 학기 동안 그룹 스터디가 진행되었다. 선정된 그룹의 명단은 다음 표와 같다.

각 그룹에게는 1인당 오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과 원하는 그룹에 한해 웹하드 100M가 제공되었으며 교수학습개발센터 온라인 게시판에 2주마다 한 번씩 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교수학습개발센터는 학습 보고서와 그룹 활동의 내용을 근거로 두 개 팀을 우수 그룹으로 선정하여 학기말에 시상하였다.

제1회 학부생을 위한 스터디 그룹 명단

그룹명	강좌명	구성원 해당 학과
TBO group	물리학 1	물리학부 · 전기컴퓨터공학부 · 화학생물공학부 · 재료공학부
물리학의 끝에서 QFT를 외치다	양자장론 1	물리학부
해석사랑	해석개론 1	경제학부
허이짜 허이짜 물리화학	물리화학	식품공학과
A <sup>+</sup>	유기화학	식품영양학과
관리회계 정복을 위해	관리회계	경영학과
천장지구	중국문학사1	중어중문학과
디오스코리데스	생화학 1	약학과 · 제약학과
데보ROTA	민주주의론	교육학과 · 국민윤리교육과
DC 스터디	데이터 통신	컴퓨터공학부
현대 민주주의 연구	현대 민주주의의 쟁점	정치학과 · 외교학과
시각 넓히기	서양사를 보는 시각	서양사학과 · 인문대 기초과정
핵물리 뽀개기	응용핵 물리	원자핵공학과
날개	식품생물공학	식품공학과
현대대수	현대대수학	수학과 · 통계학과
동양의 고전	동양의 고전	불어교육과 · 국어교육과 · 사회복지과 · 법학부 · 인문대학
복소스터디	복소변수함수론	수학교육과

지난 6월 28일에 있었던 결과 발표회에서 각 팀 대표가 발표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성과와 부족했던 점 등을 간단히 정리해보자 먼저 가장 궁금한 점은 당초 프로그램 취지에 맞게 그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발표자들의 결과 발표를 통해 보았을 때, 애초 우리 대학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피했던 목적에 상당히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학생들 스스로 긍정적인 성과로 제시한 것들이다 첫 번째로, 혼자서 했다면 중도에 포기했거나 절대로 불가능해 보였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팀원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학습 목표를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얻은 성취감과 자신감을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꼽았다 두 번째로, 2주간 학습 보고서 제출과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지원(감시!?)으로 인해 주기적인 모임이 가능했고 학기말에 좀더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말한다

세 번째로, 교대로 의장을 맡아 발제를 준비하고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발표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각자 관심 있는 주제를 바탕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탐구하여 독자적인 연구 성과, 즉 논문을 냈다는 점이다. 그밖에도 학부제 속에서 학문적 동료들을 만날 수 있었다거나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는 방법을 배운 것 등을 꼽고 있다. 이처럼 스터디 그룹 운영 지원은 각 스터디 그룹의 일차적 구성 목적인 교과 내용의 올바른 이해와 성적 향상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다. 즉 학생들은 스스로 창의적인 학습 결과를 내었다.

반면에 운영상의 미숙함이나 각종 시행착오 등의 몇 가지가 보완해야 될 점으로 지적되었다.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스터디 공간 확보의 문제이다. 학생회관이나 두레문예관이 개방되어 있긴 하지만 예약문제나 거리상의 이유로 강의실이나 학과 세미나실을 이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강의실은 오후 7시 이후에 폐쇄되고 세미나실은 대학원생 위주로 운영되어 일부 스터디 그룹은 공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그 다음으로는 스터디 팀원이 모두 같은 학번이거나 스터디 참여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 운영의 노하우가 없어 진행이 어려웠고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될 때 바로잡아줄 사람이 없어 오랜 시간 헤매기도 했다고 말한다. 한결같이 선배나 교수님의 조언이 절실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밖에도 토론 주제나 문제를 선정하는 데 따른 어려움, 운영 보고서 양식의 문제 그리고 처음 만난 구성원간의 결속력 문제 등이 거론되었다.

지금까지 '제1회 학부생을 위한 스터디 그룹'의 긍정적인 성과와 부족했던 점들을 살펴보았다. 이제 두 번째 공모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보완하고자 한다. 먼저 교수학습개발센터(61동) 1층 공부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최대한 스터디 공간의 제공에 노력을 기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담당 과목 교수와의 2회 이상의 면담을 의무화하여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지도교수를 통해 스터디 초기에 학습 방향이나 관련 자료를 지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스

터디 그룹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확대할 계획이며, 그룹 간의 운영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마련하고자 한다

사실, 수업을 기반으로 구성된 스터디에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지원이 과연 필요한가, 과한 것은 아닌가에 대한 논쟁이 센터 내외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러한 논쟁을 뒤로 하고 지난 학기 학부생들의 학습 태도를 개선하고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취지 아래 ‘학부생을 위한 스터디 그룹’이 추진되었다. 제1회 스터디 그룹의 활동이 마무리된 이 시점에서, 참여자들은 다음 학기에도 자발적으로 스터디 그룹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많은 친구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애초의 논쟁이 불식될 만큼 충분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보다 많은 학부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다음으로 우수 그룹으로 선정된 ‘복소스터디’와 ‘현대 민주주의 연구’ 스터디 그룹이 직접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고 참여한 경험을 운영기로 써 주었다. 두 팀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복소스터디’는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5명이 ‘복소변수함수론’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주 2회 이상 스터디를 꾸렸다. 모든 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매주 꾸준히 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학기말에는 고등학교 복소수 단원의 활동지를 개발했고, 팀원별로 관심 주제에 관한 논문을 작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담당 교수의 관심 또한 높았다.

‘현대 민주주의 연구’는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와 외교학과 5명이 ‘현대 민주주의 쟁점’ 수업을 중심으로 스터디를 운영하였다. 이 그룹은 활발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문제의식을 심화·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적극적인 수업에 참여하고 독자적인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학기말에 팀원들 모두 각자의 관심 주제별로 논문을 작성하였고, 해당 수업에서도 좋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 팀으로 인해 수업 분위기가 활발해지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다는 후문이다. 